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다민족 연합 기도회(11/2, 4:00pm, VC본당)
 - 그룹장 모임(11/13)
 - 예손 예배(11/13, 6:00pm, 새가족 환영식)
 - 추수감사 특별새벽 부흥회(11/17~22, 강사: 한기흥 목사)



가정교회 예배안 2025. 11. 2

11월 첫째 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욥기 2:6~10)

■ Welcome

최근 나를 가장 답답하게 하거나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하게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욥기 2:6~10

6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7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8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9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10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 서론

욥기는 많은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환란, 어려움. 이런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서 없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요?

(욥기1:1~3)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 그의 소유물은 양이 칠천 마리오 낙타가 삼천 마리오 소가 오백 겨리요 암나귀가 오백 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모든 것을 갖춘 의인인 욥에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재난이 닥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놓고 시험해 보기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생명은 보존하도록 명령함으로써 사탄의 권한을 제한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통제권을 여전히 가지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이 고난의 정점에서 그 신앙이 어떻게 시련을 이겨내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 관찰 질문: 욥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요?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해답 1.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어라.

하나님은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생명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옴이 겪은 고난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무관심 하셔서가 아니라, 그의 신앙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2절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가운데 사방이 막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니라'라고 하십니다. 나의 삶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spirit of God)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면서 일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이 함께하신 대표 인물들

- ① 요셉(창 39:2, 21): 종과 죄수의 상황 속에도 형통하게 하심
- ② 다윗(삼상 18:14): 전쟁과 도피 속에서도 인도하심
- ③ 다니엘(단 6:22): 사자굴에서의 보호

✿ 적용 질문 1

- 1) 지금 내 삶에서 '혼돈, 공허, 흑암'처럼 느껴지는 영역은 무엇인가요?
- 2)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믿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답 2. (남에게)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자.

옴은 아내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고 지적하면서,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신앙고백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옴은 아내의 말을 신앙 없는 자들의 말로 단호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고난 중 불평, 겉으로만 신앙을 흉내내는 삶, 기도 없이 결정하는 삶, 말로 상처 주는 태도 모두 성경이 경계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옴의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고통 가운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의 말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상황이나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적용 질문 2

- 1) 나도 모르게 고통받는 지체에게 성급한 판단이나 불신앙의 말로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예: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빨리 잊어버려",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등)
- 2) 고난 중인 이웃에게 '어리석은 말' 대신 건넬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이나 행동은 무엇 일까요?

해답 3. (나 자신에게) 입술로 범죄하지 말자.

10절에서 옴은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뜻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 주실 때만 하나님'으로 여겨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에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옴은 고난 중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과 독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옴처럼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재앙 중에도 복을 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옴은 신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재 가운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굽는 그 비참한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았을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옴은 지금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과거의 복을 잊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던 기억을 잃지 않는 것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 고난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진짜 신앙을 가진 인물들

- ① 다윗: 고난 중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었지만, 입술을 재갈 물리듯 조심함 (시 39:1)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니..."
- ②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함 (행 7:60)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 ③ 예수님: 십자가 고난 중에도 말로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심 (벧전 2:22-23)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 ④ 다니엘 (다니엘 6장):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타협의 말을 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찬양함

✿ 적용 질문 3

- 1) 지금의 고난 때문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는 무엇인가요?
- 2) 옴, 스데반, 예수님처럼 고난 중에도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할 말이나 태도는 무엇일까요?